

내적통제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 예 지 양 순 경 이 상 희[†]
광운대학교

본 연구는 미혼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내적통제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남녀 356명(남성 73명, 여성 283명)을 대상으로 내적통제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구글(Google)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단순선형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 Sobel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내적통제성, 이성관계 만족도, 자아탄력성, 미혼성인, 매개효과

[†] 교신저자 : 이상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sanglee@kw.ac.kr, 02-940-5423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20대는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rikson(1959)은 초기 성인기를 개인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모든 측면을 통합해야 하는 과도기라고 언급하며 따라서 성공적인 적응과 통합이 성인기 이후의 인생을 대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rikson(1963)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는 이성관계를 통한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성인초기는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을 했던 청소년기와는 달리, 폭넓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권용은, 2015). 또한 성인 초기에는 이성과의 관계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성과의 관계 형성은 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 형성을 갖추게 해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박선미, 2003).

이렇듯 성인초기에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과 앞으로의 인생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20대 청년들은 이런 중요한 과업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춘을 위한 고민상담 공간인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을 방문한 20대 청년 1만 24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23.5%)과 남성(18.4%)의 고민 순위에서 연애가 2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캠퍼스 잡앤조이, 2018.01.12.).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이 초기 성인기의 20대들은 이성 관계를 잘 맺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실

제 여러 대학에서는 연애와 관련된 강의들이 개설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모 대학에서는 ‘나만 안 되는 연애’라는 특강이 개설되었는데 이성교제에 대한 노하우와 난관 극복 방법을 배우고자 18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한국대학신문 2017.11.18.). 다른 대학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대학생 연애 특강’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려 100명의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한다(U's Line, 2016.10.28.). 또한 연애 컨설팅, 맞선 서비스, 연애 강의 등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The Times”는 중국의 결혼 적령기 남녀 싱글족들이 연애 강습을 받기 위해 1년에 무려 20만 위안(3천 3백만원)을 쓰고 있으며 중국내 데이트 사업이 2015년에만 27억 위안(4천 5백억 원) 규모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SBS 뉴스, 2017.12.13).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애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연애를 하고 있거나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20대의 비율이 80.7%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20대의 13.5%가 서적·강의로 연애 공부를 하고 있고,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스카이데일리, 2015.10.26). 이런 사회적 현상들로 유추해 보았을 때, 성인 초기의 청년들은 이성 교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또한 이성교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이성교제 관계를 맺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런 일련의 사회적 현상들에 입각하여 이성관계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나아가 개인의 적응적인

이성교제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성관계에서 이성관계 만족도

이성관계는 이성교제를 통해 형성되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남녀가 친밀감을 쌓고 서로에 대한 욕구와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여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성관계의 만족은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성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한다(홍대식, 2000). 이성과의 교제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인격적인 성숙해지도록 도와준다(박은영, 2003). 이성교제 대상으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고 돌봄 받는다고 느끼는 친밀감을 통해 관계 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는데(Reis & Shaver, 1988), 이성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는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이 시기에 친밀감 형성과 정체감 확립은 궁극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결혼 후의 생활에도 기여함은 물론 그 이후의 인생의 중요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Sprecher, 1999).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성관계는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해주지만,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의 안녕감에 손상을 줄 만큼 정서적인 고통을 준다(Weiss & Heyman, 1997). 홍대식(1998)의 연구에 따르면 이성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의 부재는 개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성과 관계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으로 그 부적응적 측면이 나타나거나,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깊이 않

은 피상적인 수준의 관계로만 머물게 될 수 있다(정윤경, 2004). Erikson(1959)은 성인 초기에 친밀한 이성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친밀감 형성의 실패는 순간 뿐 아니라 평생 동안 개인의 감정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친밀감이 이후 자녀의 낭만적 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차정화, 전영주, 2002).

성인 초기의 이성관계는 아직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며, 서로의 적응유형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시기의 연인들은 많은 갈등을 경험하기 마련이다(강진희, 2011). 김나리(2002)의 연구에서는 이성 교제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갈등 조절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다른 여러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만족스러운 연인 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예나, 김정택, 2008; 설경옥, 백상은, 원수경, 황여주, 2016; Appel & Shulman, 2015; Overall & Simpson, 2013), 이는 이성교제 상대방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상대방과의 갈등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관계 만족도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

의 영향도 받는데,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Segrin, Hanzal, & Domschke, 2009; Mattson, Rogge, Johnson, Davidson, & Fincham, 2013). 하유진(2007)은 갈등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내외통제성을 언급했다.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Phares(1957)가 제시한 내외통제성(Internal-external control)은 개인의 성격변인 중 하나로써 사람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안정된 특성이다. 내외통제성은 어떤 행동에 따른 성공과 실패를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신념과 자신감, 자아존중감, 수치감, 죄책감과 같은 정서적 경험과 관계된다. 통제소재는 그 사람의 성격, 인생관, 사건에 대한 대처, 성취에 관한 태도 및 노력 등 여러 가지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이훈구, 1980). 내외통제성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나누어지는데, 개인이 어떤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자신의 능력, 태도, 노력 등과 같은 내적인 요인으로 돌리면 그 사람을 내적통제성을 가졌다고 본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과는 무관한 어떤 외부의 힘이나 운명, 우연, 기회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돌리면 그 사람을 외적통제성을 가졌다고 본다(Hooyman & Kiyak, 1988; Rotter, 1966).

Davis와 Phares(1967)는 환경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내적통제자와 외적통제자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환경을 억제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고 기만하였음을 발견했다. 내외통제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

면 대체로 내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의 행동 특성이 외적통제성을 지닌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내적으로 통제할수록 책임감이 강하고 자아 강도가 높으며 욕구불만에 대한 인내심이 강하고 불안과 소외감이 적고(Williams & Vantress, 1969)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더욱 능동적이었다(Seligman, 1975; Pittman & Pittman, 1979). 그에 비해 외적으로 통제할수록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더 무기력하며 혐오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Pittman & Pittman, 1979). 또한 내적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에게 귀인 하는 성향이 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반면, 외적통제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 외부의 힘이 자신을 통제한다고 믿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잘못을 회피하고 변명을 하게 된다(Rotter, 1966).

이런 개인적 측면에서 내적통제자들의 긍정적 요소들은 적응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통제성과 대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Catania, McDermdt, & Wood, 1984; Duttweiler, 1984). 또한 내적통제소재자는 외적통제소재자에 비해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하며(백양희, 최외선, 1997), 상대방에게 보다 많은 대인관계 매력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Holmes & Jackson, 1975; Johnson & Cerreto, 1975). 이어서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성과 더 많은 교

제를 하고 그 관계에도 더욱 만족한다(Catania, McDermott & Wood, 1984). 국내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자는 적응, 인지과정,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등의 요소에서 외적통제자보다 우수한 면을 보이고(김성자, 2010; 박영신, 1995),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인관계를 보이는 반면, 외적통제자는 유순하고 자기비하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보였다(김영례, 198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인 측면을 보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한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이성관계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내적통제성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나 힘든 상황에서 충동적인 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행동적 문제나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조절능력으로, 내·외적 긴장원인에 대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lohn, 1996).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역동적인 성격특성이며, 주어진 상황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박원주, 이기학, 2008). 내외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성격변인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통제소재와 자아탄력성의 공통된 특성을

찾아보면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 불안과 우울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통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에 비해 적응적이고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통제하는 반면, 외적 통제자는 부적응적이고 무기력을 학습하고(Husaini & Neff, 1987), 스트레스 대처에 소극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이계성, 2013). 이러한 특성을 자아탄력성과 함께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들은 융통성을 지니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며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점에서(Block, 1980; Block & Kremn, 1996) 갈등상황에서 내·외적 통제소재와 유사한 형태의 대처방식으로 나타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내적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외적통제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덜 불안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이 보고되었다(안선행, 2004).

또한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은 낯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 해결을 위해 동기를 잘 조절하는 행동특성을 보이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같은 상황에서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부족하고, 비조직화된 행동을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불안이나 우울에 취약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것에 비해, 자아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그 상황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고은정, 1997). 이러한 특성을 통제소재와 관련지어 보면 내적통제성을 지닌 아동은 환경을 수정하고 조절하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인지과정, 적응,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등의 요소에서 외적 통제자보다 우수한 면을 보인다(김성자, 2010, 김영례, 1981, 박영신, 1995, 백양희, 최외선, 1997)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내적 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의 공통적 특성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불안이나 우울 등에 덜 취약하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이 내적통제를 할수록 자아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선행, 2004). 이와 같이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또한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내적통제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따라서 개인생활이나 단체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Forgas, 1985).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존재인 부모와 형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아탄력성이다. Block과 Kremen(1996)에 의하면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활기차고, 놀랐을 때도

평정을 바로 찾으며 친구들에게는 관대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한다. 또한 이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며 스스로를 상당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여기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꼈을 때에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에서나 학교 등에서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Garmezzy, 198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한 민동일(2007)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낮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경향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낮은 예민성을 보였다.

높은 자아탄력성은 상황의 특성과 개인행동 사이의 적절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 더 나아가 동시다발적인 자극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참여를 하게 만든다(Tellegen, 1985). 자아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며 상당히 자기 의지적이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과외활동이나 학교 클럽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비형식적인 지지요소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처럼 상당한 독립심과 사회성을 가짐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Garmezzy, 1983).

한편, 이성관계를 대인관계의 긴밀한 형태로 봤을 때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좌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이며

(Block & Block, 1980),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자각과 인지, 행동을 조절하여 자기인식을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 불안 등의 민감성에 관한 심리적 반응을 낮추어 긍정적인 삶이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고 보고되었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여러 연구들에서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이나 분노표출, 공격성과 같은 문제가 비교적 적고 학교적응과 대인관계가 양호하다고 나타났다(박원주, 이기학, 2008; Robins et al., 1996).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부적응 적이고 부족한 융통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정서 중심적 대처(Lazarus & Folkman, 1984)와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Wenzlaff, & Bates, 1998). 즉,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여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내외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성격변인이라는 점에서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사한 형태의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갈등의 해결은 곧 관계의 만족도와 연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아탄력성이란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자아탄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혜순(2011)은 예비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인 교수효능감과 문제해결방식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짐을 검증하였다. 유아 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문제 상황에서 문제해결 중심 전략을 사용하고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

이 사용하여 문제 상황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매개변인임을 보고하였다. 전경하(2011)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자본과 학교생활 적응 사이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아동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내적통제성, 자아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 각각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세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했다. 그동안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이라는 변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과의 관련성이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두 변인은 대인관계 만족감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인 변인들의 영향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크게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간의 관계를 살피고,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려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세 변인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과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을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하고, 자아탄력성이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자아탄력성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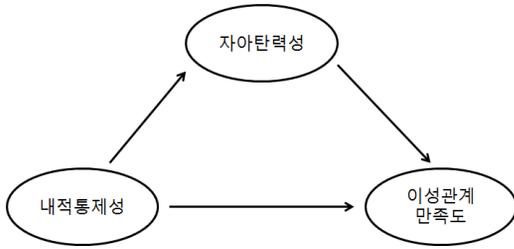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아탄력성은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의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현재 연애 중인 20대 미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간표 어플인 ‘에브리 타임’에 구글(Google) 온라인 설문 링크를 올려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20대 미혼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설문 링크를 전송하여 설문 참여 부락을 하였고 각자의 SNS에 설문 링크를 공유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방문자 유입이 많은 개인 블로그에 설문 링크를 올린 후 설문 참여를 부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356)

항목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자	73	20.5
	여자	283	79.5
나이	20	15	4.2
	21	41	11.5
	22	53	14.9
	23	67	18.8
	24	56	15.7
	25	43	12.1
	26	26	7.3
	27	31	8.7
	28	17	4.8
	29	7	2.0
학력	고등학교 졸업	9	2.5
	대학(교) 재학	235	66.0
	대학교 졸업	72	20.2
	대학원 재학	25	7.0
	대학원 졸업 이상	1	0.3
	전문대 졸업	14	3.9
	관리직	1	0.3
	기능-기술직	5	1.4
	전문직	27	7.6
	사무직	27	7.6
직업	판매-서비스직	10	2.8
	자영업-사업	4	1.1
	학생	259	72.8
	기타	18	5.1
	없음	5	1.4

탁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약 1주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약 400명이 참

여하였다. 그중 조건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5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남성이 73명(20.5%)이고, 여성이 283명(79.5%)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들의 학력은 대학교 재학생이 235명(6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재학이 각각 72명(20.2%), 25명(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들의 직업은 학생이 259명(72.7%)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27명(7.6%), 사무직 27명(7.6%), 기타 18명(5.1%), 판매-서비스직 10명(2.8%)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이 역시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20-25세 비율이 77.2%였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293명(83.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측정도구

내적통제성 척도

내적통제성은 Rotter(1966)의 내외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척도를 선택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40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내외통제성은 사건이나 외부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내적인 경향성과 사건이나 외부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외적인 경향성으로 개인의 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Victor, 1971).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보다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 귀인시킴으로써 자발적이며 선택상황에서 외적통제자보다 더 많은 대안책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된다(문항 예: 운명이란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뜻을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외통제성 척도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척도

Block과 Kremen(1996)이 제작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ER89)를 정봉교(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14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척도로 개발되었으며 채점기준은 문항 전체 합을 구하여 0-10점은 매우 낮음, 11-22점은 낮음, 23-34 점은 보통, 35-46 점은 높음, 47-56 점은 매우 높은 자아탄력성으로 구분되어진다(문항 예: 나는 놀란 경우에도 빨리 잊거나 회복된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부터 상당히 빨리 벗어난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의 값은 .90으로 나타났으며(박란희, 201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9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Synder(1979)의 결혼만족도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 및 예비검사를 거쳐 만든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K-MSI)를 유소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부분 수정하고, 다시 이복동(2001)이 요인분석으로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41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미혼의 남·여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

사소통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 등의 4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 예: 나는 파트너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꽤 만족하고 있다. 내가 슬퍼할 때마다 내 파트너는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이성관계 만족도를 알아보는 질문지이기 때문에 하위 요인의 전반적 불만족을 전반적인 만족으로,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을 정서적 의사소통 만족으로,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을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으로, 공유시간 갈등을 공유시간 만족으로 바꾸어 채점한다. 역문항과 순문항을 바꾸고 문항의 값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전반적 불만족 .86,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81,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82, 공유시간 갈등 .7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에서 사용된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연구가설 검증은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문항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통제성, 자아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내적일관성 측정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그 값이 0.7이상을 넘어서면 측정요인들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이근희, 2014),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므로 측정문항 간 내적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각 변인의 왜도 범위는 -.486~.182, 첨도 범위는 -.374~.313로 왜도의 절대값은 3보다 작고 첨도는 8보다 작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를 구하여 표 2에 함께 제시하였다. 내적통제성은 자아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성별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있었으며, 성별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이성관계 만족도는 성별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통제와 이성관계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1. 내적통제성	3.50	.39						
2. 자아탄력성	2.90	.43	.35**					
3. 이성관계만족도	3.16	.13	.32**	.38**				
4. 성별	1.79	.40	-.12*	-.26**	-.11*			
5. 학력	2.35	.66	-.00	-.10	-.01	.11*		
6. 연령	23.8	2.22	-.01	.05	-.06	-.18**	.48**	

** $p < .01$. * $p < .05$.

분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잔차의 독립성이 2에 근접해 독립성이 충족하여 회귀분석이 적합한지 분석하였다(강병서, 김계수, 2009).

매개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3단계 매개효과 기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는 1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매개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매개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동시에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 보다 작으면 부분매개이고,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게 된다(Baron & Kenny, 1986).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Sobel 검정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매개효과 검증으로 매개효과 중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Sobel 검정의 검정값은 Z값이 +1.96보다 크고, -1.96보다 작으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할 수 있다(Sobel, 1982).

내적통제성을 설명변인으로 하는 자아탄력

표 3.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adjR^2$)	F
내적 통제성	자아 탄력성	.387	.055	.349	7.014***	.122 (.120)	49.198
내적 통제성	이성관계 만족도	.104	.016	.319	6.342***	.102 (.099)	40.222
자아 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	.112	.014	.379	7.714***	.144 (.141)	59.503

*** $p < .001$.

성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R^2 은 .122로, 12.2%(수정계수에 의하면 1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통계값이 $p=.000$ 에서 49.198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Durbin-Watson은 2.127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적통제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 $\beta=.349$ ($t=7.014$, $p=.000$)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적통제성은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적통제성을 설명변인으로 하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통계값이 $p=.000$ 에서 40.222의 수치를 보이며, 이 모형의 R^2 은 .102로, 10.2% (수정계수에 의하면 9.9%)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Durbin-Watson은 2.004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적통제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 $\beta=.319$ ($t=6.342$, $p=.000$)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내적통제성은 이

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을 설명변인으로 하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모형을 살펴보면, F통계값이 $p=.000$ 에서 59.503의 수치를 보이며, 이 모형의 R^2 은 .144로, 14.4%(수정계수에 의하면 14.1%)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Durbin-Watson은 1.960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아탄력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 $\beta=.379$ ($t=7.714$, $p=.000$)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3단계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가를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여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349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2단계에서는 .319,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213, 매개변인이 .305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의수준을

표 4.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자아탄력성	내적통제성	.349	7.01***	0.122	49.198***
2단계 (독립→종속)	이성관계 만족도	내적통제성	.319	6.342***	0.102	40.222***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이성관계 만족도	내적통제성 자아탄력성	.213 .305	4.148*** 5.943***	0.184	39.717***

** $p < .01$, *** $p < .001$.

가능할 수 있는 t 값과 p 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 효과가 3단계에서의 독립변인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단계에서 12.2%, 2단계에서 10.2%, 그리고 3단계에서 18.4%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Z=4.565$ 이며, 이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Erikson(1963)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초기 성인의 중요한 발달과제는 이성관계를 통한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친밀감 형성과 정체감 확립은 궁극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결혼 후의 생활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이후 인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Erikson, 1959). 그러나 취업난과 대학등록금 등 경제적 문제로 3포(연애, 결혼, 출산)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를 살아가는 2030세대들에게는 결혼과 출산만 버거운 게 아니라 연애도 쉽지 않다. 또한 이성관계는 결혼과 달리 계약적인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취약성을 가지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부관계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Cate & Lloyd, 198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미혼 남녀들

은 이성교제 중이거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서 이성관계로 인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에서의 갈등 발생은 필연적으로 동반되기에 갈등의 발생 여부 자체보다는 그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갈등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내외통제성을 생각할 수 있다(하유진, 2007). 또한 이성관계를 대인관계의 긴밀한 형태로 봤을 때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도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여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적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외적통제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덜 불안하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이 보고되었기에(안선형, 2004), 자아탄력성이 내적통제와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을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연애 중인 20대 미혼인 성인을 대상으로 내적통제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 이성관계 만족도는 모두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또한 내적통제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외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은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성격변인이라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는데 내적으로 통제할수록 스스로 유능하다고 느끼며(Abraham & Christopherson, 1984; 박수남, 1991), 욕구가 좌절된 상황에서도 건설적으로 잘 대응한다는 특성처럼(Brissett & Nowicki, 1977) 내적통제성은 자아탄력성과도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적통제성을 갖는 사람은 높은 부정적 스트레스와 우울 및 특성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반면(Johnson & Sarason, 1978), 내적통제성은 환경의 수정 및 조절에 적극적이며 인지과정, 적응,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등의 요소에서 외적통제자보다 우수한 면을 보인다는(박영신, 1995, 김성자, 2010, 김영례, 1981, 백양희, 최외선, 1997)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내적통제자의 적응적이고 스트레스 상황을 잘 통제하는 모습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특성과 유사하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융통성을 지니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며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기 때문이다(Block, 1980; Block & Kremn, 1996). 이러한 몇 가지 특성을 비교해 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내적통제자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불안이나 우울 등에 덜 취약하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의 통제소재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이 내적통제를 할수록 자아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안선행, 2004), 이러한 결과는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내적통제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내외통제성은 결혼만족도와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유용한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결혼만족도와 내외통제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이종숙, 1998; 박성호, 2001; 장문선, 2003)과 대인관계만족도와 내외통제성을 다룬 선행연구들(류승량, 2002; 조경은, 2008; 최미영, 2012; 노운란, 2013)에서 내적통제성을 높게 가질수록 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통제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통제자는 외적통제자에 비해 가족,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가지며(Duttweiler, 1984),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성과도 더 많은 교제를 하고 그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atania, McDermdt & Wood, 1984). 국내의 연구에서도 내적통제자는 적응, 인지과정,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 스트레스 대처 등의 요소에서 외적통제자보다 우수하며(김성자, 2010, 박영신, 1995),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인관계를 보이고 있었다(김영례, 1981). 관계 만족도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내적통제소재자는 외적통제소재자에 비해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기 때문에(백양희·최외선, 1997)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Segrin et al, 2009; Mattson et al, 2011). 또한 내적통제자는

상대방에게 보다 많은 대인관계 매력과 친밀감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는데(Holmes & Jackson, 1975; Johnson & Cerreto, 1975) 결혼만족도 및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내적으로 통제할수록 결혼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적통제성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사람의 성격, 인생관, 자아개념 등 많은 변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형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서도 도리어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고(이옥형, 2012; Block & Block, 1980; Funder, Block & Block, 1983), 상대방과 더 협동적이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란희, 2015). 또한 상황의 특성과 개인행동 사이의 적절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 더 나아가 동시다발적인 자극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참여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ellegen, 1985).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성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갈등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Block과 Kreman(1996)는 자아가 탄력적인 아동들은 활기차고 놀랐을 때도 바로 평정을 찾으며, 친구들에게는 관대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며 스스로

를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여기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꼈을 때에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에서나 학교 등에서 가족 또는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Garmezy, 1983). 국내 연구의 경우, 민동일(2007)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낮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경향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낮은 예민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보다 원만하고 풍요로운 대인관계를 가질 경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내적통제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성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제로 자아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처를 덜 받거나 역경에 취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다(박현선, 1998). Block과 Block(1980)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즉,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여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이성교제 중인 두 사람의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은 내적통제 소재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내적통제자의 적응적이고 스트레스 상황을 잘 통제하는 모습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아탄력성의 유연한 문제 해결력을 통하여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통제 소재와 자아탄력성은 모두 이성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특히 내적통제 소재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자아탄력성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이성교제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응답자가 20대에 국한되어 있었고 서울 지역의 응답자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직업이 대부분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를 일반 성인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음에도 자아탄력성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자아탄력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의 상관성이 모두 0.3~0.4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내적통제소재와 자아탄력성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성

관계 만족도에 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선정하여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선택하여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부분수정한 후,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내용들은 모두 불만족을 측정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역문항과 순문항을 바꾸고, 문항의 값을 불만족에 0점, 만족에 5점으로 처리하여 평균 평점이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결혼 만족과 이성관계 만족은 구성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두 번의 재해석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본 척도를 사용한 해석은 조작적 정의를 통한 변인의 구성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결혼 관계가 아니라 미혼 남녀의 이성관계 만족에 초점을 둔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이성교제가 진행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사람이 아닌,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만족도와 이성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제한점이 있었다(엄혜정 & 정혜정, 2006; 이선지,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현재 이성교제 진행 중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기에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대인관계에 속하는 이성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아직까지 이성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애착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적 변인보다 개인내적인 변인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 내적인 변인들 중 내적통제성과 자아탄력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성인 초기 20대들의 친밀한 이성관계 형성과 유지에 바람직한 코칭 및 교육적인 함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제중인 연인들의 관계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해 내고, 관계만족도의 향상과 원만하고 안정된 연애 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확인한 것은 성공적인 이성교제를 위한 코칭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지도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성교제 기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결혼 후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고, 이성교제기간 중의 갈등수준은 결혼 후 적응수준의 연계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이성관계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이성관계를 위한 코칭시에 코치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내적인 변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확장되고 응용된 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병서, 김계수 (2009). SPSS 17.0 사회과학 통계분석. 한나래.
- 강진희 (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정 (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권용은 (2015). 부의 양육태도가 여대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의 매개효과.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자 (2010). 초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례 (1981). 내외 준거성과 대인관계 행동 간

- 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나, 김정택 (2008).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사랑 성향과 이성교제시 갈등해결 전략에 관한 연구. *인간이해*, 29, 19-32.
- 노윤란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내적통제성과 교우관계의 관련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량 (2002). 장 의존성 및 내외 통제성과 또래지위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 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란희 (2015). 한국 대학생과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대인갈등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미 (2003). 미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호 (2001).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수남 (1991). 아동의 통제 소재에 따른 지각된 유능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1995). 대학 학업성취집단과 성별에 따른 통제부위 신념의 차이. *한국교육심리학회*, 9(1), 57-92.
- 박원주, 이기학 (2008). 탄력성에 따른 성격유형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75-695.
- 박은영 (2003). 이성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 연인간 의사소통과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貧困靑少年의 學校 適應柔軟性.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양희, 최외선 (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농촌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 불안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경옥, 백상은, 원수경, 황여주 (2016). 남녀 개인의 정서 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에서 공동 대처 방략의 매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45-468.
- 스카이데일리 (2015.10). 2015.10.26. 연애킷팅, '직업 or 사기' 논란 속 '배고픈 청춘' 흡인.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40500 에서 검색.
- 안선형 (2004). 아동의 통제소재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혜정, 정혜정 (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2), 137-152.
- 유소영 (2000). 사랑 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성 (2013).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군희 (2014). *연구방법론의 이해*. 서울: 북넷.
- 이복동 (2001).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고려*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지 (200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중숙 (1998).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심리사회적, 발달적 이해. 한국인간발달학회, 5(1), 161-189.
- 이훈구 (1980). 내외통제성, 한국 초·중·고학생의 내외통제 경향성.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 41-59.
- 정봉교 (2007). 전두피질 비대칭성, 긍정적 정서 및 접근동기,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9(2), 127-147.
- 장문선 (2003). 기혼여성의 우울증상과 결혼만족도: 내외통제성, 역기능적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4(3), 577-590.
- 정윤경 (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개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경은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규칙 및 아동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 7(1), 39-57.
- 최미영 (2012). 대학생들의 내외향성, 외모인식, 내외통제성이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유진 (2007).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20, 30대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대학신문 (2017.11). 2017.11.18. 경동대 특강, '나만 안 되는 연애' 특강. <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1562> 에서 검색.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홍대식 (2000).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한 특징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23-262.
- SBS 뉴스 (2017.12). 2017.12.13., 中 '연애' 교습비 1년에 3천3백만원: 싱글족 2억명을 잡아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279938&plink=ORI&cooper=N AVER&plink=OOPYPASTE&cooper=SBSNEWS SEND 에서 검색.
- U's Line (2016.10). 2016.10.28. 세종대, 대학생 연애 특강 실시...참여율 높아. <http://m.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8172> 에서 검색.
- Abraham, K. G., & Christopherson, K. G. (1984). Perceived Competence among Rural Middle School Children: Parental Antecedents and Relation to Locus of Contr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4), 343-351.
- Appel, I., & Shulman, S. (2015). The role of romantic attra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 predicting shorter and longer relationship maintenance among adolesc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4(3), 777-78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issett, M., & Nowicki, S. (1973).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and reaction to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1), 35-44.
- Catania, J. A., McDermott, L. J., & Wood, J. A. (1984). Assessment of locus of control: Situational specificity in the sexual context. *Journal of Sex Research*, 20, 310-324.
- Cate, Rodney. M., & Lloyd, Sally. A (1985). The Effect of Equity, Equality, and Reward Level on the Stability of Students' Premarit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6), 715-721.
- Davis, W. L., & Phares, E. J. (1967). Internal-external control as a determinant of information-seeking in a social influence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35(4), 547-561.
- Duttweiler, P. C. (1984). The Internal Control Index: A Newly Developed Measure of Locus of Control.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4(2), 209-221.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with a historical introduction by David Rapapor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 Company.
- Forgas, J. P. (1985). *Interpersonal behaviour: The psychology of social interaction*. Oxford: Pergamon Press.
- Funder, D. C., Block, J. H., & Block, Jack. (1983). Delay of gratification: Some longitudinal personality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6), 1198-1213.
- Garnezy, N.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43-84). New York: McGraw-Hill.
- Greeff, A. P., & Bruyne, T. D. (2000). Conflict management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6(4), 321-334.
- Holmes, D. S., & Jackson, T. H. (1975). Influence of locus of control on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ffective reactions in situations involving reward and punis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1), 132-136.
- Hooyman, R., & Kiyak, H. A. (198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 Husaini, B. A., & Neff, J. A. (1987). Urbanicity, ra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4), 520-536.
- Johnson, J. H., & Cerreto, M. C. (1975).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 attraction to a similar and dissimilar stranger. *Psychological Reports*, 37, 1122-1123.
- Johnson, J. H., & Sarason, I. G.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5), 932-946.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attson, R. E., Rogge, R. D., Johnson, M. D., Davidson, E. K., & Fincham, F. D. (2013). The positive and negative semantic dimension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20(2), 328-355.
- Overall, N. C., & Simpson, J. A. (2013). Partner Buffering of Attachment Insecurity. *Journal of Personality*, 40(3), 392-405.
- Phares, E. J. (1957). Expectancy changes in skill and chance situ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3), 339-342.
- Pittman N. L., & Pittman T. S. (1979). Effects of amount of helplessness training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39-47.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24(3), 367-389.
- Robins, R. W., John, O. P., Caspi, A.,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6). Resilient, overcontrolled, and undercontrolled boys: Three replicable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57-17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brra, D. A., & Ferrer, E. (2006).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emotional experience following nonmarital relationship dissolution: Dynamic factor analyses of love, anger, and sadne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motion*, 6(2), 224-238.
- Segrin, C., Hanzal, A., & Domschke, T. (2009). Accuracy and Bias in Newlywed Couples' Perceptions of Conflict Styles and the Associ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76(2), 207-233.
- Seligman, D. (1975). Learned helplessnes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5(1), 3-46.
- Snyder, D. K. (199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4), 813-823.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precher (1999). 'I Love You More Today Than Yesterday': Romantic Partners' Perceptions of Changes in Love and Related Affect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46-59.
- Tellegen, A. (1985). Structure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681-706.
- Victor, M. (1971). Incentive Preference and Resistance to Temptation. *Child Development*, 42(2), 625-628.
- Wenzlaff, R. M., & Bates, D. E. (1998). Unmasking a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How lapses in mental control reveal depressive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6), 1559-1571.
- Weiss, R. L., & Heyman, R. (1997). Couple interaction. In W. K. Halford, & H. J. Markman (Eds.), *Clinical handbook of marriage and couples intervention* (pp. 13-41). New York: Wiley.
- Williams, C. B., & Vantress, F. E. (1969). Relation between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aggress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71(1), 59-61.

1차 원고접수 : 2018. 04. 23

2차 원고접수 : 2018. 05. 24

최종게재결정 : 2018. 06. 11

**The effect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 resilience**

Choi, YeJi

Yang, Sunkyung

Lee, Sanghee

Kwangwoo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To examine this, 356 male and female who unmarried adult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of self resilienc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as like following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locus of control on self 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The higher internal locus of control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 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self resilience on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Third, the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es that self resilience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self resilie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hem.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al locus of control,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self resilience, mediating effect